

“73년전 꼬마탐험대가 걷던 길이에요”

김녕초등교 만장길 탐방 부종휴 선생 기일 맞아 5-6학년 발자취 따라 걸어

고속이 교장 “만장길 탐방 학교전통으로 계승할 것” 학생들 “세계적 경관 지닌 김녕 마을에 자부심 느껴”

부종휴 선생과 그의 제자인 꼬마탐험대가 만장굴을 찾아 걷던 길을 73년이 흘러 후배들이 걸으며 그 당시 분위기를 경험했다.

김녕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38명과 교사 4명은 21일 학교를 출발해 부종휴 만장굴 탐사길인 ‘만장길’ 5.4km 구간을 걸으며 이들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 이뤄진 김녕초의 첫 도전은 또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행사일이 선생의 기일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고속이 교장은 “오늘은 부종휴 선생이 돌아가신지 39주기(1980년 11월 21일)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인지 날씨도 맑고, 선생이 우리 교정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꼬마탐험대인 김녕초 선배님들이 만장굴을 찾아 떠났던 길을 따라 걷는 것으로, 앞으로 만장길 탐방행사를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특히



강시영 전 한라일보 선임기자가 학생들에게 73년전 부종휴 선생과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개교기념일(9월 1일)을 만장길 탐방 현장체현의 날로 정해 선생과 꼬마탐험대의 뜻을 매년 기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탐방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은 학교운동장에서 70여년 전, 부종휴 선생과 꼬마탐험대가 외쳤던 “만장굴 만세”를 힘차게 외치며 그날의 환희를 재연했다.

탐방에는 강시영 전 한라일보 선임기자가 동행하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들의 행적과 발달, 오름 등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만장길은 당시 부종휴 선생과 함께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였던 꼬마탐험대가 걸었던 길”이라며 “특히 이분들은 세계자연유산 핵심공간

인 한라산과 만장굴을 찾아 기록하며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비포장도로에 질신을 신고 햇볕을 들어 탐사에 나선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한 김녕에는 2014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밭담이 많은데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던 제주사람들의 개척정신 등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느끼며 걸었으면 한다는 말도 전했다.

허승·허혜성(6학년) 어린이는 “(만장길은)학교랑 가깝지만 자주 오지 않았던 길인데, 이번을 기회로 부종휴 선생님과 학교 선배님인 꼬마탐험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며 “졸업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서빈(6학년) 어린이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게 됐다”며 “우리 마을인 김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2019 한산 부종휴 길 걷기”는 제주도세계자연유산본부 주최, (사)제주주역사문화진흥원·(사)한산부종휴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지난 15일 길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중 만장길 걷기 3회, 12월 한산길 걷기 등 모두 4회차로 꾸러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동지역 일부 통학구역 변경

과대학교 등 대상 구역 조정

제주시 연동과 오라동, 노형동, 화북동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와 달라진 상황을 보면 연동 37동1반이 신제주초에서 한라초로, 오라동 5동4반이 오라초에서 제주중앙초로, 노형동 61동1반이 노형초에서 백록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화북동 14동2반 일부와 14동3반 일부는 화북초에서 삼화초로 변경됐다. 초등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학편의, 학급 편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원도심학교와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통학구역을 신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공무직노조, 2019년도 단체·임금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1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2019년도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8년도와 비교해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각 직종별 2만8000원부터 11만5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협약서에는 2019년 공무직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가능시간인 노조창립기념식에 대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



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연차 당겨쓰기 확대(다음년도 연차 유급휴가 중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 지원기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상윤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2일 금요일 음 10월 26일 (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10%	10%
30%	성산 10%	10%
30%	고산 10%	10%
30%	서귀포 10%	10%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13-14℃, 낮 최고 기온은 20-21℃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을 전망이다.

해돋이 07:11	달뜨기 01:57
해질미 17:28	달지기 14:52
물때 만조 07:13	간조 01:16
19:33	13:17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4/21℃
모레	구름 많음	17/2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고용장려금 6개 국가사무 도가 맡는다 내년 하반기부터... 기간 단축 등 도민수혜 확대

그동안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이뤄지던 일부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제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일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고용장려금 6개 사업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돼 직접 수행하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관되는 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을 포함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광주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이뤄지면서 타 시·도 보다 처리기간 소요 등 도민 불편이 있었다.

이번 권한이양을 통해 6개 고용장

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제주도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인 홍보, 상담안내는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3~7일 정도로 단축되는 등 도민 편의 증진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이양사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윤기자



2019 서귀포시 경제포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분토론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의 현황들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11월26일(화) 15:00
장소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개회식

인사말씀
김창홍 (서귀포시상공회장)
김성은 (서귀포신문 대표)
* 사회 : 장태욱 서귀포신문 편집국장

토론주제

- 1차 산업 위기 및 모색
- 제주관광산업 진단과 해결방안
- 제2공항에 대한 입장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
- 서귀포 관광 미항

토론자

양윤경 (서귀포시장)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송형록 (제주상공회의소 중앙위원)
* 좌장 : 박세영 아나운서

주최 서귀포시상공회 서귀포신문사